

총장 선출 제도 관련 직원 전체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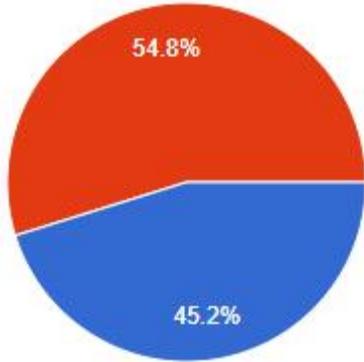
☞ 설문 기간: 2020년 7월 8일(수)~9일(목)

☞ 설문 대상: 직원

☞ 설문 방법: 인터넷(google)

☞ 설문 응답: 104명 참여/직원 200명(휴직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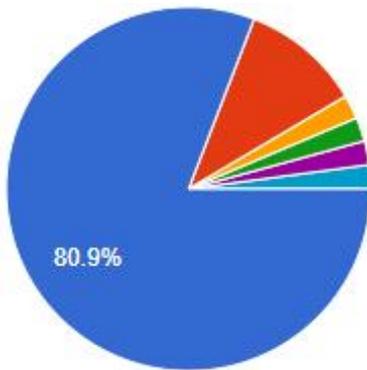
1. 법인에서 현행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전환하려는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

- 법인 주관 및 심사, 간선제로 전환해야 한다.[57명/54.8%]
- 교수회 주관, 직원 참여의 현행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.
[47명/45.2%]

☞ 응답: 104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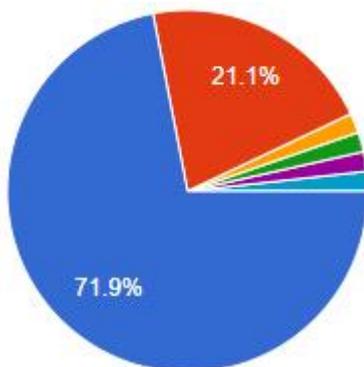
1-1. 현행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면,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

- 직원 참여율이 조정되어야 한다.[38명/80.9%]
- 교수, 직원 외의 대학구성원도 참여해야 한다.[5명/10.6%]
- 직원 1인 1표 참여
- 구성원의 직종 등을 고려한 공평한 비율 연구를 통한 결정
- 직선제는 유지하되 총장 후보를 외부인사 영입도 고려 가능
- 학생, 교수, 직원 고르게 참여해야 하며 구성원 모두 동등한 1표가 되어야 함

☞ 응답: 47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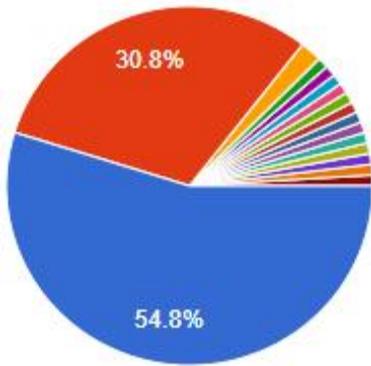
1-2. 법인 주도의 간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면,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

-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.[41명/71.9%]
- 법인의 일방적 영향력이 저지되어야 한다.[12명/21.1%]
- 후보자의 역량이 모든 구성원이 인정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함
- 간선제에도 총장후보 선거 시 직원과 교원의 동일한 투표권 보장
- 총장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
- 구성원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해 부적절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컷오프 장치 필요

☞ 응답: 57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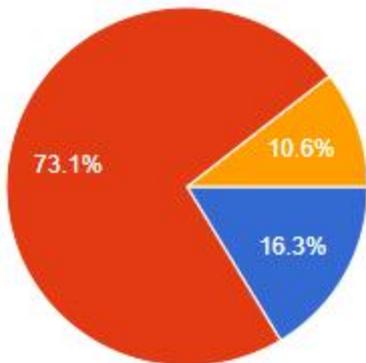
2. 총장선출의 현행 제도에 대한 간선제 계획이 제기된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

- **현행 제도의 한계 및 폐단에서 비롯됐다.**[57명/54.8%]
- **현행 제도상 문제보다는 선출된 총장의 대학경영 능력에서 비롯됐다.**[32명/30.8%]
- 현 제도의 문제보다는 향후의 계획을 염두에 둔 정책제안이라 여겨짐
- 법인의 경영권 강화 욕구
- 법인의 권한 강화
- 이사회 중심의 총장 선출 목적이 있어 보임
- 특정인 염두
- 법인의 대학 장악 의도에 의한 것임
- 법인 이사회와 총장 간의 불화
- 법인의 권한 강화 추진
- 현행 직선제로는 강한 업무 추진이 불가하므로 제도 변경으로 강한 업무 추진해야
- 직원참여비율이 저조하고 향후에도 상향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직원의 소외감이 많고 높음
- 특정인 총장 만들기
- 정상화된 이사회가 직접 임명제를 위한 과도기적 수순
-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

☞ 응답: 104명

3. 학원 정상화 1년이 지났습니다. 현재까지 법인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

- **대학 발전의 기여도가 정상화 이전과 차이가 없다.** [76명/73.1%]
- **대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.**[17명/16.3%]
- **정상화 이전의 대학 발전 기여도보다 못하다.**[11명/10.6%]

☞ 응답: 104명

4. 기타 의견 및 제안

- 총장후보자 선출 주관을 교수회의 주관이 아닌 대학의 주관으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함
 - 이사회 때문에 대학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됨
 -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사를 총장으로 추대하는 방안도 강구
 -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학과편제 구조조정 급선무
 - 대학 설립자 유족이 아닌 전문 대학 경영인이 필요
 - 대학 발전을 위하여 법인에서 다양한 노력 제시 필요
 - 기존 총장직선제를 유지한다면 직원도 1인 1표로 교원과 동일한 주권 확보 필요
 -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인과 대학의 원활한 소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
 - 법인 정상화 이후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았고 대학 3주기 평가를 대비할 때도 여전히 대학에 대한 법인의 역할은 미비하다. 먼저 법인에서 법인 스스로 역할을 어떻게 충실히 할 것인지를 제안하고 실천하기를 바란다.
 - 직원 투표 참여시 1인 1투표
 - 현 시점에서는 직선제를 지지하지만, 구체적인 간선제의 시행 계획을 확인해야 좀 더 정확한 조사 될 것 같음.
 -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교수회와 협의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, 대신 직원도 1인 1표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만약 직원 1인 1표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이사회의 주장대로 총장 간선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
 - 간선제는 찬성합니다. 다만, 능력있는 외부 인사가 경영하는 체제가 되길 바랍니다.
 - 총장직선제를 통해 직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대학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. 교내에 총장 후보가 마땅치 않다면 외부 유명인사 영입이 필요함.
 - 직선제든 간선제든 역량이 뛰어난 분이 총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어느 제도인들 최선의 인물을 총장으로 선출해낼 수 있을까요?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자질의 문제지요. 자질이 없는 분은 직선이든 간선이든 총장의 자리를 노려서는 안 될 것이고, 제도를 검토하는 주체에서도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. 대구대학교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!
 - 총장 선출제로 인한 제2의 대학 분규는 대구대 멸망의 길이다
 - 교수, 직원,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 구현
 - 대구캠퍼스 부지개발 등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사업 등을 통해 법인의 재정 독립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. 법인이 충분히 재정적 안정성을 갖추고 법인전입금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대학으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된 후에 간선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-



조합원의 권익을 쟁취하는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

<https://union.daegu.ac.kr>